

Japan Weekly Digest

2012. 8. 11 ~ 2012. 8. 17

① 주간 경제 초점

- 소비세 증세법 성립과 과제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일본 자동차부품산업의 공동화 우려
- 바이오매스(biomass)에너지 분야에 주력, 소비전력의 5% 목표

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① 주간경제초점 : 소비세 증세법 성립과 과제

□ 2014년 4월부터 2단계에 걸친 소비세 인상

- 소비세 증세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 관련법안이 8월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함으로써 성립됨.
- 현행 5%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2단계에 걸쳐 각각 인상되게 됨.

□ 세수증대분은 전부 사회보장 지출로

- 소비세율은 3%에서 5%로 인상된 1997년 이후 17년만에 인상되는 셈인데, 노다수상은 「증수분은 전부 사회보장지출로 국민에게 환원된다」고 약속.
- 일본정부는 사회보장지출이 연간 1조엔정도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증수 재원을 전부 연금이나 의료 등에 충당,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 등 3당간에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연금, 의료제도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 경기조향과 실제 소비세 인상가능성

- 문제는 실제로 소비세를 인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소비세 증세법에 명기한 경기조향에서는 2011~2020년 평균 명목 3%정도(물가변동분 제외), 실질 2%정도의 GDP성장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 경기에 대한 영향을 배려하여 경제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8% 인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소비세 증세법은 경제환경 급변시에 증세를 보류하는 경기조향을 담고 있음. 8%의 1차 인상은 가수요 유발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는 2013년 가을경 판단하게 될 것이나 10%의 2차인상은 마이너스성장하에서 판단, 재인상이 어렵게 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경기조향의 경제성장율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노력목표로 증세의 가부판단 기준은 애매함.
- 이와 관련하여 판단시기에 대해서는 수상이 국회에서 2014년 4월 세율인상 반년전이라고만 답변, 2013년 가을쯤 될 예정. 그 때 가서 증세를 보류하는 경우 일본정부는 다시 법개정안을 제출해야 함.

□ 경제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소비세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 소비세율 인상가능여부는 향후 경제상황이 달려있음. 세율 인상에 의한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가수요는 10조엔을 넘어, 그중 약 70%가 2013년도에 집중

될 것이라는 시산결과도 있음.

- 2014년도는 가수요의 반동과 소비마인드 저하가 겹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디플레하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소비세 증세는 가격전가도 용이치 않아 경기의 내구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임.
- 소비세율의 인상 간격은 1년 반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1차 증세전에 주택이나 자동차 등 고가 내구소비재에 대한 가수요가 증가할 전망.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앞당길 것으로 보여 가수요는 2013년도에 가장 크게 될 전망
- 과거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된 1997년에는 증세 이후 5월부터 경기후퇴기에 들어감. 일본경제연구센터에 의하면 증세이후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으로 예측

□ 증세부담의 경감 방안 검토

- 한편, 일본 정부·민주당은 소비세 증세에 따른 부담경감방안을 검토. 민주당은 세제조사회에서 식료품 등의 세율을 낮게 억제하는 「경감세율」을 논점에 추가하여, 감세와 현금급부를 조합한 「급부부 세액공제」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 그 최대 초점은 증세의 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저소득자 대책임. 이를 위해 식료품 등에 대한 세율을 낮게 고정시키는 경감세율을 본격적으로 검토
- 소비세율의 8%인상시 일률적으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간소한 급부조치를 실시, 그 후에는 소득공제와 현금급부를 조합한 급부부 세액공제를 도입
- 세수의 영향도 초점임. 민주당은 경가세율 도입으로 사회보장 재원으로 계상한 세수증대를 실현할 수 없게 됨을 경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식료품에 적용하면 세율이 10% 시점에서 2조엔~2.5조엔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시산결과도 있음.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일본 자동차부품산업의 공동화 우려

○ 자동차부품 수입의 급증

- 일본의 자동차부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의하면 금년 1~6월 기간중 자동차부품 수입량은 물량기준으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엔고로 인해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부품의 가격이 싸진 것이 그 주된 원인임. 완성메이커들은 일정수준의 국내생산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이를 위한 비용절감노력이 부품업체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측면이 있음.
- 닛산자동차는 주력 거점인 큐슈지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부품조달을 늘리고 있음. 닛산차체 큐슈에서 생산, 6월에 판매하기 시작한 NV350캐러밴은 부품의 40%를 아시아 등 해외로부터 수입
- 엔고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일본내 생산의 80%가 수출인 마쓰다도 일본내 공장의 해외부품 조달비율을 20%에서 2014년에 30%로 높일 계획임.
- 완성차메이커들의 움직임에 부품메이커들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
 - 수지부품을 생산하는 니프코는 한국의 자사거점에서 생산한 내장용 패스너를 큐슈자동차메이커에 공급하기 시작.
 - 산오공업도 금년도중으로 연료배관용 수지제튜브를 중국 거점이나 외주업체로부터 수입할 예정임.
- 금년 1~6월기간중 일본의 자동차생산대수는 약 525만대. 상반기중 최근 피크였던 2008년 1~6월기간중 약 606만대보다는 13%적은 수준임. 한편, 자동차부품의 수입량은 이제까지 최대기록이었던 2008년 1~6월기간중 수입량보다 3% 많음.

○ 중국산 부품수입이 40% 증가

-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40% 증가. 현지생산한 부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고, 한국도 FTA 등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지적임.
- 고부가가치 부품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닛세이 기초연구소에 의하면 자동차부품은 2012년 6월까지 6개월 연속 가격상승율이 물가상승율을 상회, 고가품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음.
- 부품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일본메이커가 국제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평가도 있음.

○ 일본내에 노하우는 남겨

- 완성차메이커들은 개발·생산 노하우를 남겨,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생산 대수를 유지하려 하고 있음. 일본내 판매는 축소경향에 있기 때문에 생산대

수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규모로 수출을 계속해야만 함.

- 그러나 현재 엔고하에서는 수출채산이 맞지 않아 저렴한 해외부품이 필수불가결. 생산대수 유지를 목표로 할수록, 부품수요는 해외로 유출되어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

○ 무역수지 영향

- 무역수지 영향은 당분간 경미한 편임. 2012년 1~6월 기간중 자동차부품의 수입액은 약 2,600억엔으로 수입액 전체의 0.8%.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도 약 4,100억엔으로 전체의 1.2%에 불과
- 그러나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전체의 5%, 자동차는 14.7%를 점하는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자동차메이커가 엔고 등을 이유로 국내 부품조달을 계속 줄여 나가게 되면, 국내부품산업이 타격을 받게되어 일본 전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확산
- 1~6월 기간중 무역수지가 약 2조 9200억엔의 적자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은 약 1조 3400억엔, 자동차는 4조 3700억엔의 흑자를 냄.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면, 금년중 무역수지 흑자전환은 더욱 멀어진다는 것

□ 바이오매스(biomass)에너지 분야에 주력, 소비전력의 5% 목표

- 일본정부가 이달중으로 마무리할 바이오매스사업 사업화전략의 원안이 밝혀짐.
 - 현 시점에서 0.3%에 불과한 일본의 소비전력량에서 점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비율을 2020년까지 약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
 -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의존도를 낮추는 논의가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이나 풍력과 함께 바이오매스를 재생가능에너지의 기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사업전략의 원안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섞어 연료 등에 사용하는 목질칩, 메탄을 발효시켜 발전에 필요한 열을 만드는 식품폐기물이나 가축배설물 등의 중점적으로 활용을 제시.
 - 그중에서도 산림에서 벌채한 나무의 찌꺼기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이같은 나무찌꺼기를 회수하기 위한 시설 등 인프라 정비를 서두를 방침임.
 - 공장에서 목재를 가공할 때 나오는 나무찌꺼기나 가축배설물의 사용량은 일본내에서 90%이상에 이르고 있음. 이 때문에 원안은 정부개발원조(ODA)를 이용, 나무찌꺼기나 배설물이 풍부한 태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의 바이오매스 기술 보급을 지원할 방침도 명기.
 - 기업이나 대학과도 연대하여 나무찌꺼기나 가축배설물 등을 고체연료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이전, 바이오매스 생산을 확대. 다만 채산성이나 안정적인 조달처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임. 해외기술이전을 통하여 수입을 늘리고 발전으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비율을 한층 높일 계획임

- 일본 정부의 에너지·환경회의는 6월말, 2030년 시점의 전원구성에서 원자력의존도를 0%, 15%, 20~25% 등 3가지 안을 제시. 조만간 결정할 원자력의존도의 수치목표가 0%인 경우 바이오매스나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2010년의 약 10%에서 35%, 15%인 경우 30%, 20~25%인 경우는 25~35%로 목표치가 높아짐.
- 바이오매스사업화전략 원안에서 제시한 소비전력량 5%를 충당하는 목표치는, 원자력의존도가 0%인 경우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기술개발의 진전 상황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열어 2년마다 수치목표를 조정할 계획임.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금전주조	2012.8.13	주방용품, 자동주조설비	프랑스/크리스텔	업무제휴/마법후라이팬의 공동설계 및 판매(유럽시장)
이스즈	2012.8.14	자동차(픽업트럭)	인도	직접투자/연산 10만대 규모의 신공장 건설, 투자규모 200억엔 정도
이스즈	2012.8.14	자동차(픽업트럭)	중국/강령기차집단	자본제휴/연산 10만대 규모의 신공장건설, 투자규모 100억엔엔 정도
동경엘렉트론	2012.8.14	반도체 세정장치	미국/FSI인터내셔널	직접투자/기업매수, 매수가 196억엔
미쓰이물산	2012.8.14	제지원료(우드칩)	칠레/IBC	자본제휴/합자회사 설립, 출자비율 49%, 일본, 중국 등의 제지회사에 수출
신일본제철	2012.8.14	원판	호주/블루스코프스틸	자본제휴/합작회사설립, 50%출자, 투자규모 약 443억엔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2012.8.14	항공기 리스	미국/잭슨스퀘어에비에이션	직접투자/기업매수, 매수가액 수백억엔(교섭중)
일본홍아손해보험	2012.8.15	보험	부탄/왕립보험공사	업무제휴/보험설계방법 등을 제공
스미토모상사	2012.8.15	특수강	인도/무칸드	자본제휴/합작회사설립, 40% 출자
일본무역보험	2012.8.16	항공기 수출	미국/보잉	수출지원/이디오피아항공의 B787 구입대금 용자에 대한 지급보증(미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미쓰비시상사/요코가와전기	2012.8.16	에너지절약기기	베트남/인도네시아	2국간 크레딧 제공/이산화탄소배출권 취득
후지제록스	2012.8.16	복합기·업무용프린터	베트남	직접투자/소형복합기 생산공장설립, 투자규모 20억엔
이데미츠	2012.8.17	윤활유	베트남	직접투자/제조·판매자회사 설립, 자본금 18억 6000만엔
일본종이펄프상사	2012.8.17	인쇄용지	브라질	직접투자/판매회사 설립, 자본금 120만달러
토요다통상	2012.8.17	자동차생산 및 인프라 정비	케냐	협정체결/케냐 정부와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 자료: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

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1) 『일본의 무역수지흑자화 지연, 대중국무역적자는 재확대』, 제일생명경제연구소, 8월11일

*출처:http://group.dai-ichi-life.co.jp/dlri/kuma/pdf/k_1208b.pdf

(2) 『2012년판 ICT국제경쟁력 지표』 총무성, 8월11일

*출처: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71721.pdf

(3) 『2012년판 세계무역투자 보고』 JETRO, 8월11일

*출처:http://www.jetro.go.jp/world/gtir/2012/pdf/shiryo2012_rev2.pdf

(4) 『지적기반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 : 지적기반정비 이용촉진 프로그램 이용』
경제산업성, 8월16일

*출처:<http://www.meti.go.jp/press/2012/08/20120815002/20120815002-3.pdf>

(5) 『일본의 제도변화와 그 경제적 귀결』 경제산업연구소, 8월17일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2080003.html>